

영광군, 상반기 출생아수 전남 군단위 1위

출생아수 283명...자연감소 부분도 2위 '최소화'

결혼장려금·양육비 첫째부터 지급 등 정책 추진

영광군은 2020년 상반기 결혼·출산 통계결과 출생아수가 283명으로 전라남도 군단위 1위라고 밝혔다.

이는 2위인 무안군(224명)보다 59명이 더 많았으며 2018년 합계 출산율 전국 1위였던 해남군(209명)보다도 74명이 더 많았다.

또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여파로 전라남도 인구 순유출이 6개월 연속 지속되었고 출생아 수와 결혼마저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영광군은 높은 출생아수를 바탕으로 자연 감소(출생아수-사망자수, △66명) 부분에서도 22개 시·군 중 2위로 최소화하였다.

한편 영광군 6월말 기준 인구는 53,475명으로 전년 대비 377명 감소하였지만 2020년 상반기 전라남

도 시·군별 인구증감을 보면 인구가 증가한 지자체는 순천시와 무안군 2곳뿐이고, 나머지 20개 시·군 중 영광군은 여섯 번째로 인구 감소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광군은 올해 초 인구 5만4천명 지키기 운동을 전개하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인구·결혼·출산·청년·일자리를 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다.

금년부터 결혼장려금 500만원,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첫째아 500만원, 둘째아 1,200만원, 셋째아부터 다섯째아까지 3,000만원, 최고 3,500만원까지 대폭 상향 지원하는 등 출산 장려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또한, 인구문제 극복을 위해

'내 고장, 내 직장 주소찾기 운동'을 관내 기관·사회단체, 기업체, 군민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관내 기업과 인구감소 극복 업무협약 체결, 찾아가는 맞춤형 인구교실 운영, 찾아가는 주소 이전 서비스를 전개하였다.

영광군은 하반기에도 맞춤형 인구출산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인구늘리기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도 가족 여행이 어려운 다자녀 가족에게 가족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난 6월에 신청·접수하여 선정을 마친 '다둥이 가족 행복여행'을 추진하며 준비된 임신과 태교법, 상대방을 배려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대화법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부부가 서로를 이해하고 건강한 결혼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신혼(예비)부부 교실'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주거비 부담 완화와 결혼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했던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까지 확대하여 연중 모집·지원하고 있다. 이밖에도 전국 최초 청년발전기금 80억 조성(100억 목표)으로 청년드림업 '321' 프로젝트, 청년취업활동 수당 지원,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운영, 청년 취업자 주거

비 지원 등 다양한 청년지원 시책도 병행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인구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영광군 인구 5만4천명 지키기 운동에 유관 기관, 사회단체, 기업체, 전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무안군, 개별공시지가 자동 문자 안내 서비스

무안군은 개별공시지가를 휴대전화 문자로 신속하게 알려주는 "개별공시지가 자동 문자 안내 서비스"를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매년 5월 31일에 결정·공시하는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개별지 가격과 이의신청 기간을 쉽고 빠르게 알 수 있도록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는 주민 맞춤형 맞춤 서비스로 현재 47명이 257필지에 대해 문자 안내를 신청하였다.

서비스 신청은 무안군 홈페이지 또는 군청 민원지적과,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한번 신청으로 서비스 해지 전까지 매년 문자가 발송된다. 신청대상은 무안군 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다.

군 관계자는 "인터넷과 휴대전화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개별공시지가 통지방법이 필요해 이번 서비스를 시행하게 되었다"며, "빠른 개별 통지를 원하는 군민들과 인터넷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들께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코로나19 진정세에 '목포항구포차' 운영 재개

목포항구포차 '가' 7월 17일부터 운영을 재개했다. 목포시는 코로나19 확진 환

자 '가'의 운영을 재개한다. 운영 중단 기간 동안 목포시

를 실시하고 음식 메뉴 보완과 시설 일부 보강 등으로 운영 재개를 준비해 왔다.

목포시는 앞으로도 시민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포차를 운영할 계획으로 시민과 이용객들은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항구 포차를 다시 찾아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하였다.

김정환 기자

운영 중단기간 동안 안전한 포차단지 조성위해 방역

음식메뉴 보완·시설 일부 보강 등 운영 준비해와

자 신규 발생으로 시민과 포차 이용객들의 건강 보호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중단했던 '목포

와 포차 운영협의회에서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포차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방역 활동



영암군, 오색옥수수 신소득작목 발굴

시종면 일원 알록달록 달고찰진 오색옥수수 첫 수확

영암군은 신소득작목을 발굴하기 위해 시범실증 중인 오색옥수수를 지난 13일 첫 수확·판매하였다.

아시아종묘와 함께 지역기후에 맞는

품종선발이라는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2018년부터 작목별 품종선발을 추진해 왔으며, 금년에는 시종면 일원에서 오색옥수수를 시범재배 하였다.

흑색, 백색, 자색, 황색, 남색 등 오색이 다양하게 혼합된 오색옥수수는 첨가물 없이도 당도가 높으며, 찰기가 있어 씹는 식감이 좋아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재배기간 중에도 많은 노동력을 들이지 않고 재배 할 수 있고 경엽 비절감도 크며, 타 품종에 비해 옥수수 이삭이 크기 때문에 상품경



쟁력도 우수하여 농가 소득창출 신소득작목으로 선발하였다.

온라인 직거래 판매에서 오색옥수수 개당 1,000원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어 일반옥수수보다 높은 가격을 받아 농가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박지언 영암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오색옥수수를 신소득작목으로 선발해 앞으로 재배면적을 확대하여 영암군 대표농산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암=조대호 기자

함평군, 위험도로 개선

특별조정교부금 10억 확보

함평군은 17일 전남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4월 김영록 도지사 방문 당시 주민숙원사업 중 하나인 위험도로 개선사업을 건의하고 이번에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마련했다.

확보된 예산은 ▲함평 소등-송정 위험도로(농로) 개선공사 ▲함평 축협-선거관리위원회 도로개설공사에 각각 5억 원씩 투입된다.

특히 소등-송정 구간은 노폭이 협소해 교행차선이 없어 그동안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으로 꾸준히 지적돼 온 만큼 올 연말까지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1.1km의 고위험 구간을 신속히 확·포장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 비상사태로 군 예산이 각종 방역과 경제지원 대책에 집중되는 상황이라 지역현안에 대한 예산지원이 그동안 부족하지 않았다"면서, "어려운 시기에 확보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해당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코로나19 극복

대숲맑은 담양은
공동브랜드

함께해요!

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의 청정자연에서
따뜻하고 성실한 농부의 손길로 수확한
건강한 우리 농산물과 함께
코로나19의 빠른 극복을 기원합니다.